

남원에 호남 최초 유적발굴관 들어선다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 19억 들여 건립... 운봉가야·기문국 학술조사 유적발굴 현장 체험·전시공간 등 역사교육장 톨모델 내년 상반기 개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호남 최초로 유적발굴관이 들어선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유물 발굴 과정 중 비가 오면 작업이 중단되고 유적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운봉가야·기문국의 실체에 접근할 효율적 학술조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유적발굴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남원시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유적발굴관 건립 설계 및 전시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받아 최근 설계를 착수했다.

유적발굴관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제38호분을 대상으로 건립되며, 전체 면적 1000㎡에 총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설덧집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다.

남원 가야고분의 특징인 터원형 봉분 형태로

지어지며, 구조는 분해조립 이동설치가 가능한 목조 골조에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외장 마감 처리한다.

유적박물관은 발굴작업공간, 전시체험공간, 간이수장고, 간이사무실, 설비실, 야외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내부에는 고분 발굴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회랑을 만들고, 고대 남원 운봉가야 및 기문국의 역사와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공간도 조성된다.

또 발굴체험 공간을 조성해 앞으로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유적발굴 현장의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문화재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올해 말 제38호분 현장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유적발굴관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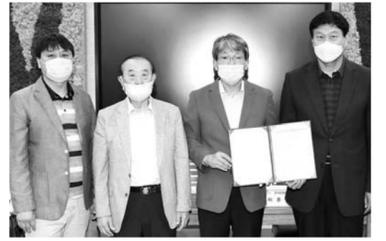
(남원시 제공)

유적발굴관을 착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호남 최초로 유적발굴관을 건립하는 만큼 역사체험교육장의 톨모델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유적발굴관 건립과 함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야 고분의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정읍시, 12월 개최키로

정읍시는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를 오는 12월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 씨름의 1인자를 가리는 대회로 태백, 금강, 한라급 경기와 천하장사 결정전이 펼쳐진다. 특히 외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계특별장사전과 세계유사씨름 시범경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정읍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7일 시청 다목적관에서 대한씨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씨름 종목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 개최로 국내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질 수 있게 됐다"며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대회를 찾는 모든 관람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은 이날 '2020 단오장사씨름대회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새만금에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2공구 3만3000㎡에 450억 투입

연구센터·아파트형 공장 등 신축

군산시가 새만금에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군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환실에서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식품 산업개발, 유통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 사업은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이끌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역은 수산물 위판물량이 연간 1000억원

에 이르지만 낙후된 가공유통 구조 탓에 원물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3만3000㎡에 국비·지방비 45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구센터, 수출·유통 협력지원센터, 아파트형 공장, 해수 인·배수 시설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국책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물김 등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개발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산 수산물의 국내·외 판매 증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선순환 지역경제 육성으로 침체한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노치 산림휴양치유마을 준공 남원시, 러브하우스 등 정비

남원시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에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노치 러브하우스, 둘레길 연결로 정비, 산책로 데크로드, 노치죽우장,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산촌 관광 기반시설을 갖췄다.

노치마을은 지리산 둘레길 1구간 백두대간 마루금이 통과하는 유일한 마을로, 500년 된 소나무 숲과 마을 뒤편 삼국시대의 산성 수정봉, 노치샘 등이 있는 명소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합심해 산림휴양치유마을을 만들었다. 살기좋은 산촌 관광마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하림그룹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방향·추진계획 확정

익산시는 하림그룹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이를 위해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앞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매달 열어 구체적 사업 방향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급적 연말 내에 일자리 모델을 확정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하림은 자산 10조 이상의 32개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다.

전북지역에 하림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와 55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업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익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는 지난 17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정현을 시장과 하림그룹 임직원, 원광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익산시 제공)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